

#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현상 분석 연구

-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 A Study or Analysis of the Phenomenal Experiences with Human Book

- Focusing on the Human Book Program at the  
G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임 성 관(Seong-Gwan Lim)\*

〈목 차〉

I. 서론	IV. 사람 책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책 운영	

### 초 록

이 연구는 사람 책의 실제 체험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들을 고찰하고 선행되어진 논문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람 책 체험의 현상학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로는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사람 책 활동을 2년 이상 하고 있는 분들 3명으로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첫째, 사람 책의 필요성, 둘째, 사람 책 활동을 통한 체험, 셋째, 사람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넷째, 사람 책 적용의 개선점의 4가지로 분류하여 인터뷰 하였다. 그 결과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교 및 독자 수, 사람 책의 숫자는 계속 확장되었고, 더불어 사람 책 활동은 참여 독자들은 물론이고 사람 책 자신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키워드: 사람 책(휴먼 라이브러리), 리빙 라이브러리, 독서, 독자와의 만남, 도서관 행사

### ABSTRACT

This article or study subjectively explores actual experiences of a human book from a phenomenal viewpoint and is based on considerable amounts of reference literature and the collecting/analyzing of precedent theses data. Selecting specific research samples and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ere made to elicit the phenomenal marks or responses in human book experiences. Samples included a total of three human book practicing teachers belonging to G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ho were picked out or chosen according to their rich performance experiences/activities over a two year period. They were interviewed in four different basic topic areas or parts sectioned out to the following: 1) actual needs of a human book; 2) experiences in human book; 3) changes of cognition to the human book; and, lastly 4) improvement in the application of a human book. As a result, the number of schools, the number of readers,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human book activities continued to expand. In addition, human book activities have become an opportunity for growth not only for participating readers, but also for the human book itself.

Keywords: Human book(human library), Living library, Read, Relating with a readers, Library events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강사(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7년 8월 9일 •최초심사: 2017년 8월 29일 •게재확정: 2017년 9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153-176,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9.15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제 도서전을 개최할 정도의 출판 대국이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천 개가 넘었으며, 작은 도서관을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도서관(실)이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 서점 또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sup>1)</sup> 따라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독서를 하고자 했을 때 환경적 여건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국민독서실태를 살펴보면 독서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심지어 전자책을 포함해서 독서율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 설립 등의 기반 환경 조성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독서 방법이나 전략을 모색해 적절히 제공해 나가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혹자는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스마트 기기의 발달이 초래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 스마트 기기의 발달 덕분에 사람들은 독서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다만 독서 매체가 종이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일 뿐이고, 작가들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 사유가 담긴 글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 인터넷 기사, SNS를 통해 주고받는 대화 등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두루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방법이나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 연구자는 그 방법을 사람 책 활동에서 찾고자 하였다. 사람 책은 평소 서가에 꽂혀 있지 않고 목록을 통해 존재한다. 그런데 만남을 갖고 읽기를 원하는 독자가 있으면 대출이 되어 이야기 들려주기와 대화를 통해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 체험이면서 동시에 주인공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독서에 비해 효과가 클 것이라 예상되므로, 사람 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각 도서관 혹은 각 지역을 대표해 연령대별, 분야별 혹은 주제별로 보유되어 있다면, 국민들의 독서 생활은 보다 다양해지면서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국내 도서관 중에는 이미 사람 책 활동을 도입해 운영 중인 곳이 있고, 이벤트 형식으로 실시를 했던 곳도 있다. 하지만 아직 체계가 부족하다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책 활동을 중심으로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현상학 관점에서 규명하면서, 사람 책 활동의 구조와 특성 및 효과를 알아본 뒤 이 활동을 공공도서관

1)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010개이고 작은도서관은 2015년 기준 5,595개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2016년 기준 11,561개이다.

관 서비스로 실시할 때 참고 및 주의할 점들을 도출해 제안하고자 한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을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현대적인 관점과 사람 책의 입장을 더해 바꾸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현재의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사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사람 책의 실제 체험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면서, 사람 책 활동의 구조와 특성 및 효과를 알아본 뒤 이 활동을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실시할 때 참고 및 주의할 점들을 도출해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사람 책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선행되어진 논문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현상학은 ‘사태 자체로!’(Husserl 1913, 35)라는 구호가 말해주듯, 형이상학적인 원리, 신학적 전제, 또는 실증주의적 전제가 아닌, 현상이 드러나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일종의 철학적 사상이자 방법론이다. 서구 전통 철학이 강조한 주체/객체, 의식/대상이란 이분법에 도전하면서 사물이 우리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탐구한다. 이때 현상학은 객관적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몸/정신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데, 이때 몸은 정신, 의식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형성하는 신체이며, 타자(세계, 타인, 사물)와 상호주관적 경험을 하는 신체를 말한다(김현정, 한석진 2017, 21).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람 책 체험의 현상학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독자들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았다.

셋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통해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실시할 때 참고 및 주의할 점들을 도출해 제안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사람 책의 실제 체험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사람 책이 갖고 있는 특성과 내면구조를 분석하여 사람 책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3호)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공도서관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사람 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의 활동과는 만남의 대상 등 맥락이 다를 수 있다.

둘째, 근본적으로 사람 책은 서로 잘 알지 못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줄이자는 의도로 기획된 행사였기 때문에 전직 노숙자나 트랜스젠더, 정신병 환자 등의 계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사람 책 중에는 나름의 역경은 갖고 있었으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배타적 소수자의 입장에 처했던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심층 인터뷰의 대상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셋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 분석한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으로 사람 책 활동을 2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 3명의 주관적인 입장일 수 있다. 또한 사람 책을 대출해서 만남을 가졌던 독자의 입장은 심층 인터뷰가 아닌 사전 질문지만 살펴본 한계점도 갖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람 책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는 2000년도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도서나 인쇄매체가 아닌 사람이 정보자료가 되어 이용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서관서비스의 개념이다. 이러한 휴먼 라이브러리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찬식 2014, 10).

우리나라에는 2012년 3월, 서울 노원구에 최초로 상설 휴먼 라이브러리가 생겼다. 현재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는 책 대신 문화, 의료, 금융, IT, 환경,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718명의 휴먼 북이 비치되어 있다. 독자들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휴먼 북’을 빌린다. 책처럼 사람을 빌린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먼 북의 목록을 살핀 후 열람을 신청하면 휴먼 북과의 일정을 조정해 만남이 이루어진다.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모두 휴먼 북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여료가 들지 않는다.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책을 대신할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지난 해(2016년) 휴먼 북 열람 건수는 7,400여 건에 달한다(허정숙 2017, 48).

사람 책(휴먼 북, human book)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도서관서비스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사람 책과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여 정보교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성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에의 지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람 책과 이용자 사이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판단에 기초한 정보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도서관서비스와 비교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휴먼 라이브러리의 의의를 도서관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람 책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범주를 넓히고 도서관서비스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 자료와 도서관의 이용을 다양하게 해왔다면, 사람 책을 통한 휴먼 라이브러리는 변화하는 정보요구에 대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람 책과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행사를 통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현대 사회에 보편화되어가는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조찬식 2014, 10).

## 2. 선행연구

사람 책 활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공공도서관에서 행사로 접목된 것이 채 10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인지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것과 학술대회를 통해 간단히 발표된 자료들도 찾아 고찰하였다.

남효진(2017)은 ‘통합독서를 위한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접목할 수 있는 통합독서활동으로서의 리빙 라이브러리를 연구하여 그 가치를 ‘살아있는 경험 읽기, 공동체적 읽기, 공감적 상상력으로 읽기, 창의·융합적 읽기’의 4가지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합독서활동으로서의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재형(2016)은 ‘리빙 라이브러리의 비판적 검토와 독서교육적 함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독서운동으로 시도되고 있는 리빙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성격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후, 거시적인 의미로서의 독서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리빙 라이브러리는 사람 책과 이용자의 상호작용, 운영상의 저예산, 도서관의 공공성·평등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그 운영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사람 책 범위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리빙 라이브러리는 비록 문자 텍스트 읽기는 아니나, 거시적인 독서 프로그램으로서 그 독서교육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조찬식(2014)은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휴먼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성북구의 휴먼 라이브러리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성북구의 휴먼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이해 증진에 일조하였다.

황희선(2014)은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 과정 연구 :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통해,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비추어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의 성패는 운영자 및 기획자 요소가 중요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커뮤니티의 필요성, 기획자를 위한 교육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김미영과 황인혜(2015)는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를, 박나원과 오동근(2015)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와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리빙 라이브러리’,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 책’과 같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이 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실행되었던 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곳에서 효율적으로 접목해 독서교육이나 독서활동의 측면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언을 하고 있다. 이어서 차이점으로는 각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휴먼 라이브러리’나 ‘리빙 라이브러리’가 아닌 ‘사람 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람 책은 독자를 만나 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리빙 라이브러리’나 ‘휴먼 라이브러리’는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맥락은 같지만 연구 내용이 활동 전반 혹은 사람 책 자체에 의미를 두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이 선택한 용어 또한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다른 연구들은 이론적 측면이나 운영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반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사람 책으로 참여해 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측면을 바탕으로 현상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접근했다는 차이가 있다.

### Ⅲ.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책 운영

#### 1. 사람 책 모집 및 운영 시작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사람 책 모집이 시작된 것은 2015년 7월이다. 또한 모집된 사람 책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9월부터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의 모든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사람 책 활동을 추진한 목적은 독자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해하고 개선, 청소년의 다양한 꿈과 희망을 사람 책으로 경험하고 구체화, 사람 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이때 모집된 사람 책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기부자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함으로써 인생을 돌아보는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싶으신 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전하고 싶으신 분, 나만의 어려움과 편견을 경험하고 극복하신 분, 전문적 지식 및 역량을 나누고 싶으신 분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을 두었다. 또한 모집 분야는 ‘기술/재능, 주부, 봉사/복지, 환경, 교육, 소방/경찰, 자영업, 직장인, 해외 활동, 공무원, 스포츠/레저, 문화/예술, 시민운동, 대중문화인, 건강/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공지를 통해 사람 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책 재능 나눔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 ‘자기소개서’ 안에는 사람 책으로서의 제목, 서문, 역사 및 줄거리, 목차를 적어 독자들이 선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 책으로 선정이 되면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기본 소양 교육에 참여를 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람 책과의 만남을 신청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사람 책과 경기도 내 중·고등학생들의 만남에 있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쪽은 사람 책들인데, 왜냐하면 사람 책들이 만남을 신청한 학교들의 일정을 보고 활동 가능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각 학교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일자에 활동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람 책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 책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의 <표 1>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활동 지원자들에게 배포한 ‘사람 책 재능 나눔 신청서’ 양식이다.





이어서 다음의 <표 2>는 자기소개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책 이야기 양식’에 본 연구자의 내용을 채운 것이다.

<표 2> 사람 책 이야기 양식

<p>꿈 · 끼 ·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 책 * * *</p>
<p><b>◆ 제목 : 책 읽어주는 남자</b></p> <p><b>◆ 서문 :</b>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 따라서 어쩌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 문제들에 대한 적정 답을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내 삶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가족과 관계가 있다. 1차적 관계이지만 운명에 의해 맺어진 만남, 그래서 피할 수도 끊을 수도 없었던 관계는 친구들보다 먼저 철이 들게 했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기도 했다. 더불어 언제든 스스로 골라 읽을 수 있는 책과 글쓰기,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대화는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독서치료전문가가 된 나는 심리정서적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책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책과의 만남,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p> <p><b>◆ 사람 책의 역사/줄거리 :</b> 책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를 즐겨하던 나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가장 큰 고민은 ‘어느 학과를 가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을까?’였는데, 최종 선택은 ‘도서관학과(현재 문헌정보학과)’였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던 중 ‘독서치료’라는 분야를 만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수학급에 속한 장애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 있는 것을 좋아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갖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느꼈다. 그런데 마침 독서치료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나 공부를 하고 학위논문까지 작성을 하게 되었다. 이후 2년 반 동안의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생활을 마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싶은 바람으로 2004년부터 ‘H독서치료연구소’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동안 병원, 재활원, 정신보건센터 및 통합중독관리지원센터 등의 여러 심리치료 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p> <p><b>◆ 목차</b></p> <p>1. 독서치료란 무엇인가    2. 사람의 이야기    3. 책 이야기 4. 책과 사람의 만남    5. 읽고 말하고 쓰기</p>

이어서 다음의 <표 3>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사람 책 목록의 예시이다.

<표 3> 사람 책 목록 예시

No.	구분	책제목
1	휴먼라이브러리	전직 비행청소년, 세계를 누비는 활동가가 되다
2	공무원	철밥통으로 알기엔 부족해
3	비제도권학생	하루 24시간을 조각하는 소년
4	20대	네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5	비혼주의자	나는 '나'와 결혼했다
6	기자	김기자의 소심한 '바로 잡습니다'
7	신체장애인	장애에 적응하기
8	여성주의자	저는 여성주의자가 아닙니다만
9	채식주의자	채식하는 보디빌더
10	이주민	우리 힘으로 바꿔 나갈 거예요
11	아줌마	아줌마니까 할 수 있는 백만 가지 이야기
12	자치단체장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꿈꾸며
13	노숙인	매일 빅 이슈를 품에 안고 안테나 세우는 남자
14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 천사가 아니다
15	여자대학생	여대생이어서, 유학생이어서가 아니라
16	예술가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있다
17	중국인	중국인도 다 달라요
18	국회의원	환갑의 정치 신인, 인사드립니다
19	농부	쌀 한 톨이 품은 이야기
20	한부모가정	편부모가 아니라 한부모입니다
21	동성애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22	경찰	나는 오늘도 경찰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달려간다
23	전라도민	전라도 사람은 왜 그래?

## 2. 사람 책 운영 현황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사람 책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17년 현재까지 3년째 운영 중이다. 다음의 <표 4>부터 <표 6>까지는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사람 책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포함된 항목은 활동 장소(각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명), 운영 일자, 그리고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할 독자에 대한 구분 및 숫자, 그리고 각 장소(학교)에서 활동을 펼친 사람 책의 숫자이다.

<표 4> 2015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운영 현황

구분	일시	장소	참여대상	참석 인원	사람 책
1회	2015. 9월 중 13:00~17:00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수원)	학생, 학부모, 일반	150여명	20여명
2회	2015. 10월 중 13:00~1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생, 학부모, 일반	150여명	20여명
3회	2015. 10월 중 14:20~16:00	OO중학교	중학생	150여명	20여명
4회	2015. 10월 중 13:00~17:00	OO고등학교	고등학생	150여명	20여명

<표 4>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5년도는 경기도교육청도 사람 책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운영을 시작한 해이다. 따라서 확보하고 있는 사람 책의 수도 적고,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로 확장하기 위한 기반 작업이 필요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각각 한 차례,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차례씩만 사람 책 행사를 운영하며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운영의 측면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참석 인원(독자 수)은 총 600명, 사람 책은 총 80명이 참여하는 결과를 얻었다.

<표 5>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교는 총 24곳이다. 사람 책 활동 운영은 5월 28일 토요일 화성시에 있는 동탄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27일 화요일 성남시에 있는 태평중학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또한 참여한 독자의 수는 3,785명이고, 사람 책의 숫자는 총 422명(동탄고등학교는 가족 별로 신청을 하면, 각 가족별로 사람 책이 배치되는 구성이다. 따라서 4인 가족 당 사람 책 1명이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소 8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8명으로 계산했다)이었다.

〈표 5〉 2016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운영 현황

연번	학교명	지역	운영일	독자	독자 수	사람 책
1	동탄고	화성	2016-05-28(토)	독서 가족	30명	1명씩
2	경민비즈니스고	의정부	2016-06-17(금)	동아리	31명	4명
3	회천중	동두천양주	2016-07-11(월)	동아리	30명	4명
4	호곡중	고양	2016-07-13(수)	중 1	164명	20명
5	호곡중	고양	2016-07-14(목)	중 1	127명	20명
6	저현고	고양	2016-07-15(금)	신청자	60명	8명
7	지평중	양평	2016-07-19(화)	전교생	160명	20명
8	근명중	안양과천	2016-07-22(금)	신청자	70명	10명
9	원천중	수원	2016-08-26(금)	중 1	190명	15명
10	태평중	성남	2016-08-30(화)	중 1	30명	4명
11	광덕고	안산	2016-09-07(수)	신청자	80명	12명
12	동탄고	화성	2016-09-10(토)	독서 가족	30명	1명씩
13	태평중	성남	2016-09-13(화)	중 1	30명	4명
14	태평중	성남	2016-09-27(화)	중 1	30명	4명
15	운중고	성남	2016-09-28(수)	고 1	248명	31명
16	배곧중	시흥	2016-10-06(목)	중 1	146명	20명
17	금촌중	파주	2016-10-06(목)	중 1	140명	15명
18	금촌중	파주	2016-10-06(목)	중 1	140명	15명
19	지도중	고양	2016-10-07(금)	중 1	232명	21명
20	성호중	안산	2016-10-10(월)	중 1	310명	10명
21	범계중	안양	2016-10-10(월)	중 1	302명	30명
22	청산중	연천	2016-10-12(수)	전교생	74명	14명
23	청덕고	용인	2016-10-17(월)	신청자	40명	6명
24	상하중	용인	2016-10-20(목)	동아리	17명	2명
25	태평중	성남	2016-10-25(화)	중 1	30명	4명
26	신길중	안산	2016-10-26(수)	중 1	70명	7명
27	두일중	파주	2016-10-27(목)	중 1	60명	8명
28	장성중	고양	2016-11-01(화)	중 1	217명	22명
29	덕소중	구리남양주	2016-11-03(목)	중 1	232명	25명
30	태평중	성남	2016-11-08(화)	중 1	30명	4명
31	태평중	성남	2016-11-29(화)	중 1	30명	4명
32	백양중	고양	2016-12-09(금)	중 3	205명	20명
33	상하중	용인	2016-12-13(화)	중 3	140명	15명
34	태평중	성남	2016-12-13(화)	중 1	30명	4명
35	태평중	성남	2016-12-27(화)	중 1	30명	4명

<표 6> 2017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운영 현황

연번	학교명	지역	운영일	독자 수(명)	사람 책(명)
1	광문중	광명	2017-05-01(월)	7	1
2	파주고	파주	2017-05-19(금)	15	3
3	금촌중	파주	2017-05-24(수)	20	2
4	운중고	성남	2017-05-24(수)	160	20
5	상우고	의정부	2017-05-26(금)	194	23
6	호곡중	고양	2017-05-29(월)	100	10
7	장안중	성남	2017-06-16(금)	200	10
8	금촌중	파주	2017-06-17(토)	20	2
9	원천중	수원	2017-06-30(금)	148	15
10	해솔중	파주	2017-07-03(월)	20	3
11	지도중	고양	2017-07-04(화)	231	23
12	명문고	광명	2017-07-10(월)	30	5
13	덕소중	남양주	2017-07-11(화)	256	20
14	청산중	연천	2017-07-13(수)	76	10
15	저현고	고양	2017-07-14(목)	60	9
16	금촌중	파주	2017-07-15(금)	20	2
17	지평중	양평	2017-07-18(화)	155	20
18	상록고	안산	2017-07-24(월)	30	7
19	금촌중	파주	2017-08-19(토)	20	2
20	장안중	성남	2017-09-08(금)	200	10
21	연천교육지원청	연천	2017-09-08(금)	500	50
22	송현고	의정부	2017-09-12(화)	80	8
23	성안중	안산	2017-09-13(수)	100	10
24	금촌중	파주	2017-09-16(토)	20	2
25	산내중	파주	2017-09-27(수)	18	2
26	범계중	안양	2017-09-28(목)	275	27
27	연천중	연천	2017-10-13(금)	103	15
28	청덕고	용인	2017-10-17(화)	100	14
29	장안중	성남	2017-10-18(수)	200	10
30	금촌중	파주	2017-10-21(토)	20	2
31	신길중	안산	2017-10-25(수)	60	8
32	부천북여중	부천	2017-11-17(금)	18	3
33	금촌중	파주	2017-11-18(토)	20	2
34	과천중	과천	2017-11-28(화)	222	22
35	백양중	고양	2017-12-06(수)	177	15
36	신길중	용인	2017-12-08(금)	100	10
37	장안중	성남	2017-12-13(수)	170	10
38	배곧중	시흥	2017-12-14(목)	230	20

<표 6>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학교는 총 28곳이며 교육지원청도 한 곳이 있다. 사람 책 활동 운영은 5월 1일 월요일 광명시에 있는 광문중학교에서 시작 되었으며, 12월 14일 목요일 시흥시에 있는 배곧중학교에서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예정대로 완료가 된다면 참여 독자의 수는 4,374명이고, 사람 책의 숫자는 총 427명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람 책 활동이 운영되었던 2016년 및 2017년의 현황을 종합해 대조 및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2016~2017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운영 결과 분석

년도	참여 학교 수(개)	참여한 독자의 수(명)	사람 책의 수(명)
2016	24	3,785	422
2017	28	4,374	427
총합	52	8,159	849
증감 숫자	+4	+589	+7

<표 7>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교는 총 52개교이다. 또한 참여한 독자의 수는 8,159명이고, 사람 책의 숫자는 총 849명이다. 이어서 증감 정도를 보자면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참여 학교가 4곳, 참여 독자의 수가 589명, 사람 책의 수가 7명 증가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람 책 활동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IV. 사람 책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분석

### 1. 심층 인터뷰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기 일주일 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질문을 미리 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 발송을 하였다. 모든 질문은 참여자들이 사람 책으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은 첫째, 사람 책의 필요성, 둘째, 사람 책 활동을 통한 체험, 셋째, 사람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넷째, 사람 책 적용의 개선점을 묻는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다음의 <표 8>은 질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심층 인터뷰에서의 질문 내용

항목	질문 문항
인구통계학적 측면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람 책 활동 경력,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동기
사람 책의 필요성	사람 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책 활동을 통한 체험	사람 책 활동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사람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람 책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람 책 적용의 개선점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까요?

## 2. 인터뷰 실시

심층 인터뷰를 위한 질문이 모두 구성된 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들에게 질문지가 담긴 이메일을 2017년 7월 21일에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로 그 소식을 알렸다. 그 중 한 건은 당일에 바로 답신을 받았으며, 나머지 한 건은 8월 2일에 답신을 받았다. 마지막 한 건은 본 연구자의 것이다. 다음의 <표 9>는 본 연구자를 비롯한 면담 대상자들의 주요 인적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심층 인터뷰 참여자 주요 인적 사항

면담 대상자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람 책 활동 경력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동기
1	김**	여	55세	독서논술지도사	2년	사람도 책이라는 생각에
2	천**	여	43세	미술심리상담사	2년	용인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원가의 권유도 있었고, 덴마크의 사례를 알고 있어 우리나라 사례를 찾다가 지원하게 되었음
3	임**	남	43세	독서치료전문가	2년	평소 독서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책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 믿고 있기 때문에, 직접 책이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음

<표 9>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사람 책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나, 2년째 참여를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이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동기는 사람도 책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 측면에서의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 3. 심층 인터뷰 분석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중 개방형 코딩을 적용하여 중요한 주제와 범주를 찾는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문항 1) 사람 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은 간접적인 경험을 역동적으로 선택해 읽어야 하지만 사람 책은 온기가 있는 사람이기에 얘기하고 질문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마을의 어른이 전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1)

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에서 6년간 명예사서와 2년 정도 수업 시작 10분전 아침독서의 시간에 소리 내어 책을 읽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건 혼자 읽기 보다는 소리 내어 읽어주고, 공감하며 서로 화답하는 즐거움을 찾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흥미를 느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대출하는 학생들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부족했고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진 것이 소수의 아이들과 능동적인 대화를 하며 책임기를 해 주는 것이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책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책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 책으로 활동하는 저도 세계 시민을 키워내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기쁨과 차세대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뿌듯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 책을 함께하는 학생들의 또렷한 눈빛은 메일로 받아보는 소감문을 볼 때면 기억이 납니다. 가평이나 양평처럼 먼 거리지만 육체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가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꿈을 찾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인 듯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2)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독서는 실천하기만 하면 성장과 치유에 있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특히 활자 읽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 책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3)

문항 1)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람 책 활동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 이유는 사람 책과는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세계 시민을 키워내는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서가 실천하기만 하면 성장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며, 활자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항 2) 사람 책 활동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우선 사람 책인 사람이 학생들을 만나 인생의 중요함을 들려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 책인 제가 오히려 더 설렘과 만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1)

사람 책을 처음 했던 작년에 소감문을 받았는데, 그때 중 1학생이 본인은 많은 미술치료사를 보았지만 저에 대해 진정한 미술치료사로서 돈벌이 보다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밝게 표현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감문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본 시간이 되었다는 자기성찰의 시간이 좋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더욱 저를 돌아보며 사람 책으로 살아가는 삶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저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2)

사람 책인 제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3)

문항 2)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람 책 활동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더 설레고 만족함을 갖게 되었거나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사람 책 활동이 독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사람 책 자신에게도 지속적인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항 3) 사람 책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시간을 많이 분배해야 좀 더 먼 지역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서 빛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1)

사람 책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인 가평, 양평, 의정부, 파주, 고양 등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로 인해 혼돈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기본 바탕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인데 아이들의 발달심리나 청소년기 상황을 이해 못하고 혼재나 너무 흥미 위주로 수업하시는 분들의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편견인 듯해서 지금은 독자의 몫으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기존 사람 책이 가진 방향이 지금 현재와 맞는 것일까 기존의 취지나 목적이 흔들릴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직 자리 잡는 시기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유연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2)

대상 독자들의 연령이 어리다 보니 질의응답을 통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사람 책 취지에 부합하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실사가 되나 보니 가끔 전체 학생들이 의무적인 참여를 하는지라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가질 때가 있어서, 만남의 장에서 졸고 있거나 문제집을 풀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사람 책으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3)

문항 3)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람 책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해당 학교의 위치 및 신청 일자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더 참여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사람 책 활동 자체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문항 4)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직업군과 좀 더 많은 마을 어른을 만나면서 궁금했던 것이나 지역의 여건을 직접 듣는 것이 좋은 거라 믿습니다. (인터뷰 대상자 1)

사람 책의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윤리 강령의 필요성과 같은 직업군과의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고, 사람 책 활동의 목적을 잊지 않고 방향 설정 후 책 읽어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책 서문을 꼭 미리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능동적으로 사람 책을 선택하고 강제성이 없는 독자들로 구성되어야 생각합니다. 독자가 언제든지 책을 읽다가 싫으면 덮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는 사람 책을 만나기 전 독자들이 매뉴얼을 알고 예를 지키며 책임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2)

공공도서관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 책 활동이 실행된다면 세대를 아울러 여러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독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에서 사람 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정기적인 활동 일자를 정해 신청자가 몇 명이든 꾸준히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사람 책이 이용자의 신청으로 대출이 될 때까지 대기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실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렇게 실천이 된다면 이용자들에게도 사람 책 활동이 인식될 것입니다. (인터뷰 대상자 3)

문항 4)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다만 적정 매뉴얼이 만들어져 사람 책과 독자들이 숙지를 한 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 책 활동의 취지를 살리면서 결국 운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10>은 이상과 같은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진행한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경험에 대한 통합적 분석

개념	범주	주제
문항 1) 사람 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함	사람 책 활동의 필요 성을 인정함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2) 사람 책 활동을 통해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학생들에게 인생의 중요함을 들려주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설렘과 만족을 가질 수 있었다.	오히려 사람 책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음	사람 책 활동의 가치 가 독자는 물론 책 자체에게도 있음
사람 책으로 살아가는 삶에 부끄럽지 않기 위한 저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꼈다.		
사람 책인 제가 오히려 더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문항 3) 사람 책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좀 더 많은 지역의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싶으나 시간의 한계로 어렵다.	사람 책 활동 참여를 위 한 시공간의 한계가 있음	사람 책 활동을 위한 시공간의 한계와 대 화의 내용이 취지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 이 있음
기존 사람 책이 가진 방향이 지금 현재와 맞는 것일까 고민이 된다.	사람 책 활동 방향에 대 한 고민이 있음	
대상 독자들의 연령이 어리다 보니 질의응답을 통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사람 책 취지에 부합하는가 싶을 때가 있다.		
문항 4)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등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함	합리적 기준과 실천 을 통한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함
사람 책의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윤리 강령의 필요성과 같은 직업군과의 소통과 공유가 필요하고, 사람 책 활동의 목적을 잊지 않고 방향 설정 후 책 읽어주기를 해야 한다.	사람 책 활동의 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정기적인 활동 일자를 정해 신청자가 몇 명이든 꾸준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	꾸준한 활동의 실행이 필요함	

<표 10>은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사람 책들의 체험 경험에 대해 4개의 주제, 7개의 범주, 12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2. 독자들의 질문 분석

다음의 <표 11>에 포함된 사전 활동지는 2017년 7월 4일에 대출 방문했던 고양지도중학교 학생들이,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질문지 가운데 일부를 골라 분석한 것이다. 질문지는 총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번은 ‘내가 만날 사람 책’에 대해 정리해 보는 항목, 2번은 ‘내가 그 사람 책을 고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항목, 3번은 ‘사람 책 서문을 읽고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을 떠올려 적음으로써 실제 사람 책을 만났을 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한 항목이다. 또한 마지막 4번은 ‘사람 책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적어보게 함으로써, 활동에 참여할 때의 적절한 모습을 스스로 상기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항목을 담고 있다.

<표 11> 사람 책 활동 참여를 위한 사전 활동지

The image shows two pages of a questionnaire for a 'Human Book' activity. The left page is titled '7월 4일, Home Library가 열립니다. 사람책에게 듣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and the right page is titled '7월 4일, Home Library가 열립니다. 사람책에게 듣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Both pages have handwritten answers in Korean. The questions are: 1. Who do you want to meet? (Answer: 책 읽어주는 남자), 2. Why did you choose that person? (Answer: 책 읽어주는 남자는 좋았어), 3. What questions do you have and what do you want to ask? (Answers: 1. 가족 생김새 기억에 남았어, 2. 가장 귀여운 동물은 무엇인가, 3. 한 2030는 어떤 동물 좋아하냐), 4. How do you feel about the person? (Answer: 책을 읽어주는 남자). The right page has similar questions and answers, including '내가 그 책을 고른 이유를 써 보세요(서문 및 목차 참고)' and '사람책 서문을 읽고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을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Answers: 1. 책 읽어주는 남자, 2. 가장 귀여운 동물은 무엇인가, 3. 한 2030는 어떤 동물 좋아하냐).

<표 11>에 담긴 두 학생의 사전 질문지 작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번 항목에 대해 두 학생은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같은 사람 책을 선택했다. 이어서 2번 항목에

대해 1학년 6반의 신\*\* 학생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골랐다’고 했고, 1학년 5반의 김\*\* 학생은 ‘책 제목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리고 친구와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했다’라고 했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사람 책을 선택할 때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은 궁금증과 흥미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나와 친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어떤 책을 선택했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3번 항목에 대해 신\*\* 학생은 ‘가장 살면서 기억에 남는 일’,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 일’, ‘보람을 느꼈을 때 언제인지’라는 질문을, 김\*\* 학생은 ‘책을 읽으면 좋은 점’, ‘사람과의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들은 문항 아래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일 수도 있는데, 사람 책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사람 책 활동의 취지에 맞는 적정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번 항목에 대해 신\*\*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들겠다’라는 답을, 김\*\* 학생은 ‘사람 책 선생님께 듣는 태도도 바르게 하여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사전 활동지’ 작성을 했는데, 이 과정은 사람 책 활동의 효과를 높여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학생 자신에게는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사람 책에게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사전에 받아서 답변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람 책의 실제 체험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사람 책이 갖고 있는 특성과 내면구조를 분석하여 사람 책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해 연구를 실행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교 및 독자 수, 사람 책의 숫자는 계속 확장되었다. 이는 사람 책 활동이 3년 동안 꾸준히 실행이 됨으로써 사람 책에 대한 인식과 효과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했다는 반증이다.

둘째, 사람 책 활동은 참여 독자들은 물론이고 사람 책 자신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 책 활동이 독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사람 책 자신에게도 지속적인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 책들은 독자와 만나고 있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이 내용이 사람 책 활동 자체의

취지 및 목적에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사람 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쪽과 독자로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람 책 활동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양쪽의 목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적정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접목시키고자 할 때 참고 및 주의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에서의 서비스로 접목시키고자 할 때 가장 우선인 것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적정한 사람 책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천이나 지원을 통해 선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검증에 대한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간혹 사람 책 활동을 자신의 성과에 대한 자랑의 수단, 계도 및 훈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자인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에의 지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려면 적정한 사람 책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다. 따라서 사람 책 활동을 계획할 때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독자들은 여러 분야의 사람 책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성장 및 적응, 발달과 심신 치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이 및 학력, 성별 및 직업 등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사람 책을 읽고 함께 대화하는데 있어서도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별로 구분을 한 뒤 각 대상은 어떤 측면에서의 욕구를 갖고 있는지 사전 조사를 통해 적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람 책 활동을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적용하여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적정 지침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침서는 활동 기준이나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로써, 사람 책과 독자들이 숙지를 한 뒤 참여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이다. 더불어 사람 책 활동의 효과도 극대화 시켜줄 것이다. 따라서 적정 지침서가 만들어지면 사람 책 활동의 계획자 및 운영자, 사람 책,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육하고, 활동이 끝난 뒤에는 관련 내용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내용도 교류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 방안을 계속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민영, 황인혜. 2015.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집』, 8: 139-142.
- 김현정, 한석진. 2017. 무용학의 현상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이해. 『무용예술학연구』, 63(1): 19-34.
- 남효진. 2017. 『통합독서를 위한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인용 2017. 9. 10].
- 박나원, 오동근. 2015.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5: 183-191.
- 이재형. 2016. 리빙 라이브러리의 비판적 검토와 독서교육적 함의. 『동남어문논집』, 41: 69-88.
- 조찬식. 2014.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9-28.
- 허정숙. 2017. 사람 책을 빌려드립니다. 『월간 샘터』, 7: 48-49.
- 황희선. 2014.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 과정 연구 :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 Husserl, E. 1913.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F. Kersten(tran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3), p.35.
- Morgan, David L. & Scannell, Alice U. 1998. *Planning Focus Groups*. New York: SAG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Chan-Sik. 2014.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5(3): 9-28.
- Heo, Jeong-Sook. 2017. "Lend Human Book." *Monthly Samtoh*, 7: 48-49.
- Kim, Hyun-Jung & Han, Seok-Jin. 2017. "Critical Remarks on Phenomenological Approaches to Dance in South." *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63(1): 19-34.
- Kim, Min-Young & Hwang, In-Hye. 2015.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of the Public Libraries :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Nowon-Gu, Seoul." *Conference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8: 139–142.

Lee, Jae-Hyoung. 2016. “A Critical Review of the Living Library and Implications of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the Dongnam Language and Literature*, 41: 69–8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online]. [cited 2017. 9. 10]. <<https://www.libsta.go.kr>>

Nam, Hyo-Jin. 2017. *A Study on the Living Library Programs for the Integrated Reading*. M.A. thesis. Majoring in Read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Park, Na-Won & Oh, Dong-Geun. 201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s of the Human Library Program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 183–191.

Whang, Hee-Seon. 2014. *A Study on Planning Human Library : Focusing on Identity and Research Methodology of Human Library*. M.A. thesis. Majoring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